

홈 > 지역 > 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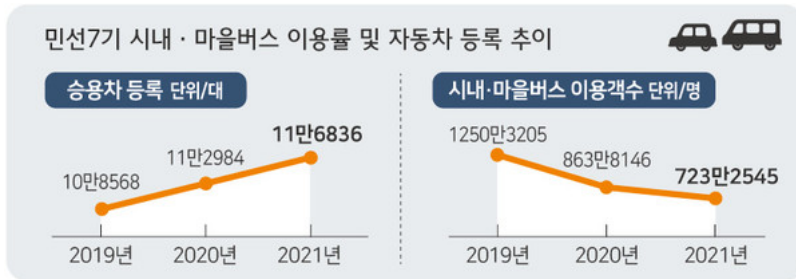
줄어드는 버스 이용객 '대중교통 천국' 먼 길

오세현 | 입력 2022.01.17 | 9면 | 댓글 0

   가 가



노선개편-걷는 길 구축 불구
버스 이용객 2년간 42.1% 감소
승용차 등록 3년새 10.4% 늘어
시, 대중교통 정책 전환 고심



민선7기 춘천시가 대중교통 천국을 내세웠지만 임기 말이 다 되도록 시내-마을버스 이용객 수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춘천에 등록된 승용차수는 늘고 있어 정책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7기 춘천시는 출범 초창기부터 '대중교통 천국'을 내세웠다. 자동차가 점령한 도시에 걷기 길과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여 자연스럽게 승용차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걷는 길 구축 등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임기 말, 결과는 정 반대다. 시내-마을버스 이용객 수는 지난 2년 간 527만여 명(42.1%)이 감소했다. 2019년 1250만3205명이던 버스 이용객수는 2020년 863만8146명, 2021년(11월 현재) 723만2545명으로 급락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시민들의 이동이 줄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는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반대로 같은 기간 승용차 등록 규모는 증가했다. 2019년 10만8568대였던 춘천지역 등록 승용차는 2020년 11만2984대, 2021년 11만6836대로 2년새 8268대(7.6%)가 증가했다. 민선7기(2018년~2021년) 3년 사이에는 1만1040대(10.4%) 늘었다.

춘천시 역시 이 같은 상황에 공감, 대중교통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장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다 할 공론도 없었을 뿐더러 그동안에는 지역사회의 골칫거리로 생각했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 이 정부 들어 주요 의제화 됐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며 "이제는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많이 본 기사

일간 | 주간 | 월간

- 1 문 대통령 메시지 전하다 울컥... 브리핑 중 울어버린 靑 대변인 
- 2 "어릴적 함께 놀던 조카 당선 감격...강한 리더십 기대" 
- 3 "강릉 외손 대통령 됐다" 똑똑하고 키가 컸던 '강골' 윤석열 
- 4 '담벼락 너머 죽마고우' 권성동 구심점 도출신 인사 포진... 강원 
- 5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장 거쳐 국민통합정부 초대 국무총리 
- 6 봄 성수기 맞아 신규 아파트 분양 본격화 
- 7 이광재 "국민 뜻 깊이 새기겠다" 숨고르기...향후 행보 주목 
- 8 "감자옥수수 아닌 관광첨단산업 중심지로" 5대 거점 설정 
- 9 국힘 18개 시군서 과반 싸움이 승리 '보수아성' 재건 성공 
- 10 내 차 창문 밖 홍천강 시름 씻어가는 '힐링캠핑' 

HOT 포토



  가 가

#대중교통

#이용객

#춘천시

시내버스

#승용차



오세현 tpgus@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인사

부음

결혼

행사

알림

- [인사]철원군
- [인사] 화천군
- 태백시 인사(2월 21일자)
- [인사]평창군
- 춘천시 (6급이하)
- 춘천시 (5급 이상)
- [인사] 화천군
- 강원경찰청 경감 이하 인사 명단



POWERED BY **NE**